통합연구

기독교 교육 에 대한 포괄적 이해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N CHRISTIAN EDUCATION

박 진 경

ABSTRACT

Christian Education can be defined "the deliberate and sustained effort to lead out desirable goals of helping a person grow to the fulness of Christ and him/her participate in the Church which is Christ's body as a member, based on the Christian faith." To gain these goals, we should underst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continuity of time (past,present,future). And also it is not proper to call Sunday school education itself Christian education. The Church is to accept Christian education as its essential responsibility and the object of it should be extended to the whole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as well as the young in their age of growing. Not only church but Christian family, school, and social organization are to participate in the Christian education. No one in the faith community should give up this responsibility. We educate each other and learn from other members and grow altogether.

Christian faith is not narrow something that controls formal religious life at church.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in the phrase of T.H.Groome) rather than simple Christian education may be the better expression to involve all the education that is Christian by/in the family, school, social organization as well as local church. For the "Christian" education, we need to confirm some basic presuppoitions and empirical knowledge in view of Christian perspective. Diagrams on the model for the "Christian" education and on the systematic structure of it are sugguested.

Ⅰ. 기독교 교육의 정의

1. 교육의 정의

기독교교육을 정의하기에 앞서 교육의 일반적인 정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줄 안다.

한자어인 교육(敎育)을 우리말로 풀면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이다. 또 교육을 뜻하는 영어 Education의 어원은 라틴어의 ducare라는 단어에 접두어 e를 붙인 것으로 ducare는 lead를 뜻하고 접두어 e는 out을 뜻하므로 그 뜻은 "이끌어 내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타고난 잠재능력을 밖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다시 발전시켜 주는 일이 곧 교육이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교육에 관여하여 왔고 또 그들마다 교육에 대한 정의나 관점도 조금씩 달랐다. 그것은 교육이 그만큼 여러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현상이며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 Lawrence Cremin은 교육을 "지식,태도 가치,기술,지각력 등을 전달하고 불러 일으키고 획득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노력과 그 노력의 결과들"이라고 정의했고[1] John A.Laska는 "바람직한 학습 결과(목표)를 얻기 위하여 학습 상황을 조정(안내,지도,조작)하는 의도적 시도"라고 정의했다.[2] 이 외에도 많은 정의들이 있으나 이들을 정리, 요약하면 교육이란 "어떤 바람직한 결과 또는 목표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바람직한 결과 또는 목표들이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포괄적으로 말하여 전인격의 성장 또는 변화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구체적인 강조점은 교육기관이나 교육가들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2. 기독교 교육의 정의

오늘날 기독교교육이라 하면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며 심한 경우에는 교단의 교리교육 정도로 이해되는 예도 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Thomas H.Groome교수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 대신에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의 포괄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는 종교교육을 "존재의 궁극적 기반에 대한 의식적인 관계가 증대되고 그 관계를 표현할 수 있게되는 삶의 초월적 차원에 참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교육이 궁극적으로는 초월을 향한 추구이므로 바람직한 교육이라면 결국 다 종교교육인 셈이다. 그는 이 종교교육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기독교교육(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고 불렀다.[3]

이처럼 기독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해한 Groome의 생각을 근거로 하여 손승희 교수는 기독교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기독교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vision에 참여케함으로써 현실 생활에서 기독교적 가치체계와 신념체계에 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일로서 기독교 공동체가 행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것이다.[4]

그밖에도 기독교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파나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며 그 강조하는 바도 다르다. 예를들면 Werner Graendorf는 기독교교육이 성경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교수-학습과정으로서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고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5]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6] 기독교교육은 하나의 종교교육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격의 경험과정, 사회화, 또는 자기실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은 인격의 무한한 성장을 강조한다. 그런가하면 구속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신앙과 교육이 만나는 원초적 자리로 이해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7]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관계에 의한 변화를 강조한다.그러나 John H.Westerhoff III와 같은 사람은 기독교교육을 신앙의 형성 과정 또는 종교의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동화작용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습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강조한다.

기독교교육에 관련한 이와같이 다양한 정의들을 앞서 말한 교육의 일반적 정의에 비추어 다시 요약하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까지 성장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지체로서 참여케 한다는 바람직한 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I. 시간의 연속성 안에 있는 기독교 교육

1. 교육의 시간적 요소들[8]

(1) 과거적 요소

우선적으로 교육은 인류의 유산을 보존,전승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유산, 즉 지식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왔다. 따라서 교육자의 역할은 과거의 유산을 현재와 미래 세대에 이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이었다. 과거의 유산이 없다면 현재는 빈약하게 되고 발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교육이 단순히 축적된 지식의 주입으로 오해될 우려를 안고 있다. 브라질의 교육가 Paul Freire가 지적한대로 교육은 가방속에 물건을 차곡차곡 넣어가듯 지식을 넣어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식을 가졌다는 자체가 인격의 변화까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이라는 의도적인 활동에 의해 기대하는 바가 교육의 대상인 피교육자의 전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과거적 요소에 치중한 교육은 정의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에서 볼 때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현재적 요소

교육의 과정은 인지적 작용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인지는 현재의 능동적 경험에서 생기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과거의 유산은 현재의 생생한 경험과 만나게 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발견된다. 현재적 요소를 고려하는 교육에서는 학습자 자신의 경험이 중요시되며, 이때 교육자의 역할은 조력자 또는 촉진자로 이해된다. 이것은 교육의 결과가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학습자의 현재 경험과 흥미만이 강조되면 과거의 유산이 잊혀지고 미래가 무시되는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교육은 단순히 학습자 자신의 흥미만을 만족시켜주거나 현실에 적응하는 법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미래의 시간적 연속성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창조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의식과 능력을 일깨워주고 길러주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9]

(3) 미래적 요소

미래에 대한 가정과 고려는 교육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동기가 되어왔다. 학습자의 현재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 역시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vision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가치있게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사회적 필요에 대처하도록 준비하는 노력은 창조와 성장과 변혁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교육이 단지 미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되지만 미래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 이 세가지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육이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현재 상태 - 발달 심리적, 정서적,신체적 및 그외 개인적 필요 등 - 를 무시한 채 미래만을 위하여 과거에 축적된 지식을 주입하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독교 교육의 시간적 요소들

일반 교육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교육에서도 시간의 연속성과 그 각각의 요소들에 대한 개념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기독인들의 삶을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순례자적 여정으로 본다면 더더욱 이 시간적 요소들의 의미가 부각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들의 증거,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온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전통 및 유산들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개개인의 실존적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궁극에는 그의 약속대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과 거	현 재	미 래
·전수된 진리의 말씀(성경) ·신앙공동체의 문화적 유산	·개인의 실존적 경험 또는 영적 필요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의 역할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표1. 기독교교육의 시간적 요소들

기독교교육의 역사를 살펴볼 때 각각의 학파들은 그 신학적 배경과 함께 시대적 상황의 변천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 나름대로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약점이란 바로 이 시간적 요소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둘을 고려하지 않은데서 온 것이고 그 결과 극단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이제 우리는 연속되는 시간의 한 시점에 서 있는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똑같은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포괄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Ⅲ. 기독교 교육의 주체와 영역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기독교교육이라고 하면 곧 주일학교 교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기독교교육은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며 또한 교회만이 책임져야 할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의 장을 흔히 가정에서 교회로 미루어 버린다.

이와같은 현상은 고도로 분화된 후기 산업사회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교육이 일관성이나 책임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기독교교육은 본질적으로 신앙교육이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기독교 가정) 밖에서의 기독교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본질상 반기독교적이며 적그리스도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회가 기독교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의 교육 상황에서는 비록 기독교 재단의 학교라 하여도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들 나름대로 기독교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을 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인들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서로를 격려할 책임이 있다.

교육기관들도 그 교육 밑바닥에 깔려있는 철학적인 전제들이나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정(假定)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처럼 반기독교적 사회와 교육제도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으며 또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독인의 삶의 본을 보이며 그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교육이 부딪히는 문제의 일부는 이처럼 교회 밖의 기관들이 기독교교육을 포기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교육이 인격의 한 부분 뿐 아니라 전 인격의 바람직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기독교교육의 주체는 교회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가정, 학교,사회가 함께 이에 참여해야 한다. 한 신앙인의 삶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생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교육을 통하여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삶 전체에 기독교 신앙이 원리로서 작용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교육의 문제는 비단 교회 외부

저자소개

저자는 서울 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4년간 중등교직에서 근무하였으며, 미국 Wheaton Graduate School에서 Educational Ministrie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영남 신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역서로는 〈기독교대학의 이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의력〉 등이 있다.

기관들의 외형적인 책임 소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도 기독교교육은 주일학교(유치부,아동부,중고등부)를 운영하는 교육부 소관의 일로 규정하고 제쳐놓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교육이 성장기에 속해 있는 연령층에게 성경내용을 비롯한 신앙지식과 교회생활을 위한 형식이나 의식 등을 전달하거나 훈련하는 과정으로만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독교교육을 기독교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장기 연령층에게 교회의 신앙적 유산을 전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교육은 계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기독교교육 역시 성장기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주일학교 교육 이상이어야 한다. 손승희 교수는 교육의 대상은 생명이 있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성장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성숙을 지향하는 젊은이, 삶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노인 모두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0]

뿐만 아니라 교육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교회 전체가 교육한다는 뜻이다. 교회의 교육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부서나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집단적 인격을 가지고 교육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초대교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지 못한 2세들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이방문화 속에 살다가 복음에 접하게 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와 생활양식을 가르침으로써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교회가 바로 이 가르치는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교리나 교회생활을 위한 것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전반적인 생활 양식과 가치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Ⅳ. 기독교적인 교육을 위한 모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기독교교육은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이해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다시말하면 교회의 형식적 신앙교육을 가리킨다. 물론 그것이 기독교교육에 있어 필요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 뿐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기 보다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개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일이 교회라는 장소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기독교 신앙은 교회생활에만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도 있다. 김성수 교수는 그의 〈교회 교육론〉에서 교육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작용하기 때문에 올바르고 참된 교육이라면 모두 기독교교육으로 보았고 그 태두리 속에 기독교 종교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교회학교교육 또는 기독교 종교교육 만을 기독교교육이라고 부른다면 기독교교육의 의미가 편협하게 될 뿐 아니라 일반교육 자체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을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하였다.[11]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형식적 신앙교육을 가리키는 '기독교교육'과 구별하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모든 교육 - 그것이 교회에서 행해지건 가정이나 학교 또는 사회에서 행해지건 관계없이 - 을 총괄하여 '기독교적 교육'이라고 부를 것을 제의한다. 그리하여 교회안에서 주로 종교생활과 직접 관련되거나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성경의 진리 및 신앙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교회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가르침을 기초로 형성된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가정교육,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기독교적 학교교육, 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교육등이 모두 이 기독교적 교육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교육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가 필요하다. 기독교적 교육 역시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독교적 교육학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어야 할 여러가지 이론적 기초들이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기독교적 교육(학)을 위한 하나의 모델을 요약해 보았다. 도표 1은 그것을 도식화 한 것이다.

기독교적 교육학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기독교적 관점, 즉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이것은 기독교적 교육 뿐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그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란 만물, 즉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것 뿐 아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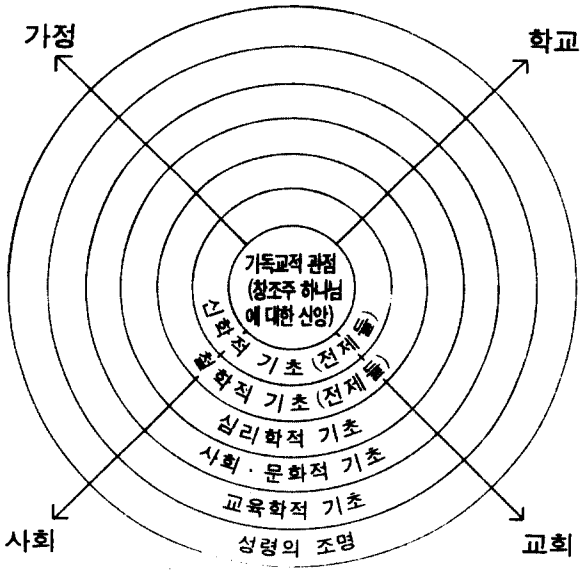

도표1 : 기독교적 교육을 위한 모델

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안목을 말한다.

다음으로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과 진리들의 체계인 신학적 기초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과 가치의 기준은 성경이다. 따라서 교육행위의 근거도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신학적 기초는 다른 어느 측면에 대한 연구보다 선행되어야 할 전제적 구조이다. 그리고 다시 그것에 근거하여 철학적인 기초가 기독교적인 교육을 위한 전제들로 확립되어야 한다. 철학의 영역은 일반적으로 궁극적 실재의 본질을 취급하는 형이상학, 지식의 본질과 근원 및 타당성을 다루는 인식론, 윤리와 심미적 측면을 다루는 가치론으로 분류된다. 이와같은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한 사고는 기독교적 교육학을 위한 이론적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의 대상을 이해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다. 학습심리나 발달심리 등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리나 방법등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피교육자, 즉 인간의 지적,정의적,행위적 측면에 대한 특성과 발달의 원리를 알고 그것들을 근거로 교육방법을 찾고 구체적 curriculum을 작성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기초이다. 이것은 교육하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함께 피교육자인 인간의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해에 관한 것이다. 사회와 문화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교육하시는 활동의 장이다. 오인탁 교수는 인간은 그가 속하여 있는 사회의 특성들과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인간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하여 그 사회의 고유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12]

이제 위와같은 전제들 또는 지식들을 기초로 하여 교육학적인 기초체계가 성립된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립된 여러가지 전제 및 기초들에 근거한 기독교적 교육학이 체계화될 수 있다. 이 교육학적 기초는 교육목적과 방법, 과정 등의 교육체계 및 교육원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이제 여기서 기독교적 교육을 위한 교육의 체계적 구조를 John S.Mill의 논리의 체계를 빌어 정리해 보자.[13]

교육이라는 일에 주체로서 관여하는 교사가 제일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다. 기독교적 교육에서는 이 궁극적 목적을 앞에서 밝힌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엡4:13)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신앙 공동체에 지체로서 참여케 하는 것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물론 사람마다 견해 차가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또는 진리 및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이다. 이것들의 본질에 대한 전제나 경험적 사실들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대상인 피교육자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음 단계는 위의 두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다.그리고 나서 이 구체적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방법의 원리들을 결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하나님(진리) 및 인간과 사회의 속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방법에 대한 경험적, 과학적 지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단계로 이제 다시 이 둘을 기초로 구체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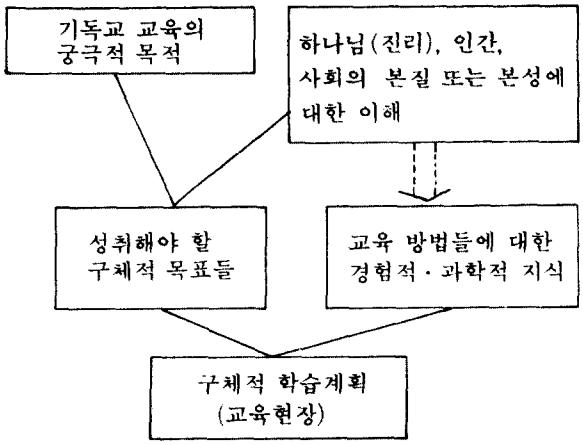

도표 2 : 기독교 교육의 체계적 구조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체계적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학적 기초에 대한 지식이 교회 또는 가정,학교,사회 등 기독교교육의 현장에 적용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거쳐야 한다. (도표1참고)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거니와 기독교인 교사는 그가 어떠한 현장에서 일하든 관계없이 기독교적 교육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기독교적이 되게 하는 것은 교육의 소재나 장소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저제나 관점임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아무리 기독교적인 전제를 견지한 훌륭한 교사가 교육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교육의 대상인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신다. 기독교인 교사의 역할은 다만 그 성령의 역사를 돕는 일이다.

1. L.Cremin.<Traditions of American Education>, p.134;T.H.Groome(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Harper & Row Pblishers.P20에서 재인용.
2. J.A.Laska(1976). <Schooling and Education>, N.Y:D.Van Nostrand Co., P.17.
3. T.H.Groome,<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PP.24-25
4. 손승희(1983). <기독교 교육학>, 기독교 방송 신학총서6,P.21.
5. W.Graendorf(ed.) <Introduction to Biblical Christian Education>,P.16; R.W.Pazmino(1984).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Baker Book House Co.,P.80에서 재인용.
6. 진보적 종교교육학파; George A.Coe,Nicholas Butler 등이 이에 속한다.
7. 기독교 교육학파;James Smart, Randolph Miller, Lewis J.Sherill 등이 이에 속한다.
8. 이 절의 골격은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의 저자인 Thomas H.Groome의 생각에서 빌어온 것이다.
9. 손승희, <기독교 교육학>,P.28.
10. 손승희,<기독교 교육학>,P.24.
11. 김성수(1986).<교회교육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위원회 교사 양성 총서6,PP.33-35
12. 오인탁, 기독교교육의 사회 문화적 기초,<기독교교육론>(제6판),은준관 외(1988),기독교교육협회,P.76.
13. W.K.Frankene 의 저서 <Philosophy of Education>에도 이러한 시도가 이미 있었다.